

윤활소식

SK (주)

SK 주유소, 국내최초로 최첨단 양방향 위성통신시스템 도입

SK주식회사(대표: 黃斗烈)는 고객의 복합생활 편의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주유소에 국내최초로 최첨단 양방향 위성통신시스템을 도입한다.

SK(주)는 25일 서울 서초구 SK반포주유소에서 KT와 「SK주유소 위성통신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700여개 SK주유소 및 충전소에 위성을 통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방향 위성통신은 위성을 통해 인터넷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개인사용자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위성통신시스템 도입으로 SK주유소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엔크린보너스카드 조회업무는 물론 SK인트라넷 및 초고속 인터넷 이용 등이 위성통신망을 통하여 진행된다. 이는 ADSL과 같은 유선 고속통신망 대신 위성통신에 기반한 최첨단 양방향 통신시스템을 구현하는 국내최초의 사례다.

SK(주) 김세광 석유영업본부장은 “이번 주유소 위성통신시스템 도입으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환경에서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선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성통신시스템 도입으로 주유소 전용 사이트인 www.skemarket.com가 활성화되고, 업

무처리 속도등이 개선 되어 주유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www.skemarket.com은 유류주문, 공동구매는 물론 데이터베이스마케팅 실행 및 각종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SK주유소 포털서비스 사이트다. 유선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일부 자영주유소에도 고속인터넷 환경을 갖추게 되어 www.skemarket.com을 통해 업무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직영주유소등도 인터넷속도 및 카드결제속도가 개선되고, 사내방송 및 원격교육이 가능해져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SK(주)는 기대하고 있다.

향후 주유소 필드나 OK마트 등에 대형모니터가 설치될 경우, 각종 현수막, 유인물 등의 제작비용이 절감되고, 광고수주에 의한 수익이 창출되는 등 주유소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OK마트, 스피드메이트, 화물운송정보 서비스인 NeTruck 등의 Non-Fuel사업 접목을 통하여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주)는 주유소 위성통신시스템 도입에 발맞춰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키오스크(KIOSK) 서비스다. SK(주)는 내년말까지 주유소에 키오스크(KIOSK)를 설치하여 도로교통정보, 지리정보 및 구인/구직정보 등 각종 생활서비스 및 고객편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SK주유소를 Life Station으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고객선호도를 높여 어려운 시장환경에 대응한다는게 SK(주)의 방침이다.

위성통신망은 위성중계기(무궁화위성3호), 중심국(HUB), 단말국(주유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유소마다 송수신기를 달아 무궁화위성

## 유행소식

3호를 통해 고속으로 인터넷 및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성통신은 타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광역성과 확장성이 우수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SK(주)는 KT와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역 14개 주유소, 제주지역 3개 주유소 등 총 17개 주유소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결제속도, 인터넷 속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처리능력 등에서 합격기준을 무난히 충족하여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3,700여개 SK주유소 및 충전소에 위성통신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유소 위성통신시스템 도입을 위해 KT는 SK(주)에 위성중계기(무궁화위성 3호), 중심국(HUB), 위성단말기 및 필요기기 설치/유지보수/철거 업무 등 Total Solution을 제공하기로 했다.

### SK(주), 中國 특수 복합수지 사업 진출

SK주식회사(대표 : 황두열, www.skcorp.com)가 중국 광둥성(廣東省) 짜오칭시(肇慶市)에 특수 복합 수지(특수 폴리머) 자회사를 설립한다.

이를 위해 SK(주)는 일차적으로 금년 11월 약 1백억원을 들여 연산 2만톤 규모의 공장 건설에 착공, 2003년 9월부터 상업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4년까지 생산능력을 연산 3만 톤 규모로 확장하고, 2005년부터는 화중(華中)과 화북(華北)에 제2, 제3공장을 지어 전체 생산능력을

연산 10만 톤 규모로 키워 중국 기능성 복합수지 시장점유율 5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광둥성에 설립된 복합수지 회사는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특수 기능성 복합수지 및 자동차 부품용의 PP(폴리프로필렌) 복합수지를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는 SK(주) 단독투자 법인이다.

특수 기능성 복합수지는 합성수지를 컴파운드(Compound) 공정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한 화학제품으로 주로 냉온방용 배관, 가스관 등의 코팅이나 건물 외장재에 사용되며, SK(주)가 자체 개발 상업화한 것이다.

현지 자회사 설립과 관련 SK(주) 특수 폴리머 사업부 유영득 상무는 “최근 중국에서는 급격한 경제성장,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비로 건설 및 자동차 산업 붐이 일고 있어 2007년까지 연평균 10~15%의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전제한 후 “이에 따라 기능성 복합수지 및 PP 복합수지의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장성을 평가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서부 타림(塔里木) 분지와 동부 상하이(上海)를 약 4천 킬로미터(경부고속도로 길이의 약 9배)의 지름 1미터 가스관으로 연결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인 서기동수(西氣東輸). 제2의 만리장성 건설이라고도 불리는 이 거대 프로젝트에 SK(주)의 복합 수지로 코팅된 가스관들이 깔리고 있다.

SK(주)는 1999년부터 중국에 기능성 복합수지를 수출해 왔으며, 올해 중국 최대 알루미늄 복합 파이프 제조업체의 제1공급자로 선정되어 2천톤 이상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최근 중국에서 유화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윤활소식

한편, SK(주)는 현지 법인 조기 안정화를 위해 철저히 현지화시킬 방침이다. 이른바 중국인의,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 '중국기업 SK'. 현지 법인에는 한국 본사에서 관리직 2명만 파견하고, 생산은 물론 마케팅 인력을 포함한 100여명의 임직원을 모두 현지인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원재료도 현지 구매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LG-Caltex 정유(주)

LG칼텍스정유, 최고급 및 RV용 엔진오일 출시

LG칼텍스정유(대표 : 許東秀 대표이사 CEO 겸 LG에너지 회장)가 100% 합성 엔진오일 시그마 PAO와 레저 차량(RV: Recreational Vehicle)용 디젤 엔진오일 시그마 터보 RV를 개발,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엔진오일은 미국 및 유럽의 까다로운 규격을 만족시키는 최고급 제품으로 LG칼텍스정유는 이로써 대중적인 제품에서부터 최고급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엔진오일 제품을 구비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고급 합성엔진오일인 시그마 PAO는 0W/40과 5W/50의 두 종류가 출시되었는데, 이들은 다른 제품에 비해 찌꺼기 생성을 현저히 줄여주는 우수한 산화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제품은 영하 25°C 이하의 혹한에서

는 차량의 시동을 거는데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고 고온에서는 엔진 내부에 적정한 윤활유막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점도를 유지한다.

시그마 PAO는 현재까지 출시된 엔진오일 중 최고 등급인 API SL급으로 기존의 엔진오일이 대부분 북미의 규격을 만족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는 달리 북미의 규격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노선을 고집하는 유럽형 자동차의 까다로운 규격까지도 만족시키는 우수한 제품이다.

함께 출시된 시그마 터보 RV는 최근 판매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레저용(RV) 디젤 차량에 맞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지면이 고르지 못한 산악 지형 등에서 많이 운행되는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전 조건이 좋지 못한 곳에서도 차량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제품은 마찰 및 마모방지 효과가 탁월한 특수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디젤엔진의 소음 문제를 개선하여 가솔린 엔진처럼 부드럽고 조용한 운행을 유지시켜 준다.

또한 이 제품은 엄격한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도입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차량의 가혹한 엔진 운전 조건 시험도 통과한 제품으로 업계 최초로 API 디젤 엔진오일 최고 등급인 CI-4급 규격을 만족시키고 벤츠 규격인 MB 228.3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고 성능등급의 디젤엔진 오일이다.

특히 이 제품은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터보 및 인터쿨러 장착 차량, 커먼레일 고압 직분사 장착 차량 및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유행소식**

장착차량 등에 탁월한 성능을 나타낸다.

LG칼텍스정유 유행유 기술팀의 김용식 팀장은 “회사가 이번에 2가지 제품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회사가 판매하던 시그마 브랜드의 엔진오일(SIGMA GX1, SIGMA DX1, SIGMA LPG)이 커버하지 못했던 최고급 합성유 엔진오일 시장에서도 회사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LG칼텍스정유 여성모니터고객, 주유소 일일 체험 행사**

LG칼텍스정유(대표이사 : 許東秀, www.lgcaltex.co.kr)가 11월 5일 계열주유소에서 여성 모니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유소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행사가 열리는 주유소는 수도권지역의 서일, 역삼, 낙성 주유소 등 3곳으로, 140여명의 신청자 중 1차로 선발된 9명의 여성 모니터 고객이 3개 조로 나뉘어 이와 같은 체험 행사를 갖게 되었다.

LG칼텍스정유는 그동안 수동적 입장에서 고객서비스를 제공받던 여성 모니터 고객이 다른 일반 고객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주유소에서 이루어지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만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생활에 밀접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점을 여성 모니터 고객에게 인식시켜 그들이 보다 실질적인 주유소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이번 체험 행사에 참여한 여성 모니터 고객들은 짧은 시간이나마 ‘역지사지(易之思之)’의 입장에서 차량 안내·유리창 세척·주유·결제 등의 서비스를 직접 해 볼 수 있어서 고객과 주유사원의 어려움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LG칼텍스정유의 여성 모니터 제도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 운전자 300명으로 구성되어 3개월의 임기 동안 전국 7개 대도시에서 주유소 서비스는 물론 주유소 병설 편의점인 조이마트(joyMart), 주유소 병설 경정비점 오토오아시스(autoOasis) 등의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을 벌이는 제도로서 현재 제2기의 여성 모니터가 활동 중에 있다.

LG칼텍스정유는 그동안 여성 모니터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들여 ‘여성 고객들을 위한 진출입 유도 서비스 실시’, ‘베스트 친절 주유원 선정 연말 시상’, ‘화장실 청결 캠페인’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LG칼텍스정유는 앞으로 여성 모니터 고객 일일 주유소 체험 행사를 더욱 확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여성과 LG주유소’라는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활소식

한국셀석유(주)

2002 셸-UNEP 세계 어린이 환경 그림 전시회

한국셀석유(주)(대표 : 金東洙, 이하 한국셀)와 셸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대표 : Coline R. McClune, 이하 SPE)가 후원하는 제 11회 셸-UNEP 세계 어린이 환경그림 전시회가 부산 어린이회관 및 BEXCO 전시장에서 동시에 열린다.

“세계 어린이 환경그림대회”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과 지구환경평화재단(Foundation for Global Peace and Environment)이 지난 199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전세계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그림을 접수, 시상하는 세계적 규모의 대회다.

UNEP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상상력이 넘치는 이 대회의 수상작품들을 전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행사를 열고 있다. 1992년 뉴욕 UN본부에서 첫 전시회를 연 이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왔다.

한국 어린이들은 지난 1999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 해 300여 작품이 UNEP 한국위원회를 통해 이 대회에 접수되어 5명의 어린이가 입상했으며 2000년 제10회 대회에서도 6명이 입상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2001년 제11회 대회 수상작 60여 작품들로, 이 가운데는 2위를

차지한 한국의 김서우 어린이의 그림도 있다.

전시되는 모든 작품들은 환경파괴의 심각함과 지구환경의 소중함을 어린이의 순수한 눈으로 그려낸 뛰어난 작품들이다. 이 대회의 수상작들은 UN의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공식포스터를 비롯, 엽서와 환경달력 등에 사용되어 전세계인의 환경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오는 24일로 다가온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 전시행사는 어린이는 물론 온가족을 위한 최고의 환경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어린이 환경그림 전시회는 부산에 이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전시관에서도 가진다.

세계 어린이 환경그림대회를 SPE와 공동후원하고 있는 한국셀석유(주) 김동수 사장은 “환경은 우리 회사와 로열더치/셸 그룹(Royal Dutch/Shell Group)이 최우선시하는 가치 중에 하나다.

이 행사를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 고 밝혔다.

SPE의 콜린 맥클룬(Colin McClune) 사장도 “환경보호는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야 한다”면서 “이 전시회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어린이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한국셀석유(주)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윤활유 산업을 선도하는 로알더치/셸 그룹의 일원이다. 지난 1969년 설립되어 현재 자동차용, 선박용 윤활유와 그리스 등 다양한 윤활유 제품을 생산, 판매, 수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경실련이 선정하는 ‘경제정의기업상’ 을 수상

**운할소식**

하기도 한 모범적인 기업이다. SPE는 석유, 가스, 전력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기획, 판매를 진행하는 마케팅 회사로 로열더취/셸 그룹의 한국 지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NOOC와 셸석유, 중국 내 석유화학단지 공동조성을 위한 마지막 합의도달**

CNOOC (중국국영오일기업) 와 셸석유 이사회는 중국 남부지구에 미화 43억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에 마지막 결정에 도달하였다.

20개월간의 단계적인 구성논의를 통하여 마침내 결정하게 되었고, 그 동안 합작기업(Joint Venture Company)은 근본적이고 일괄적인 공학적설계 및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의 영향평가를 마무리지었다.

또한 프로젝트를 위한 물류(수급), 공학적인 기획, 건설을 위한 입찰을 준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금년 중으로 미화 10억달러 이상의 공장 프로세스, 공장 자동화,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위한 주요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요 건설작업은 중국 광둥 주 Daya Bay(만) 430 헥타아르 부지의 경제, 기술개발 특구에 내년 초 시작예정이다.

합작기업(Joint Venture Company)계약은 2000년 10월, 셸 Nanhai BV와 CNOOC 석유화학투자기업(CPIL)의 50% 공동지분으로 이루어졌고, 프로젝트실시는 2005년 말로 예정되어 있었다.

CPIL은 중국 국영 오일기업(CNOOC) 90% 그리고 광둥 투자&개발 법인 10%의 기업이다.

CNOOC 사장 웨이 리우청은 “ 이 프로젝트는 Downstream 비즈니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CNOOC의 장기적인 글로벌 전략과 부합하고, Upstream 과 Downstream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국제적인 석유기업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진일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 Daya Bay(만) 은 좋은 투자환경과 시장관점에서 유리한 곳이고, 이 프로젝트는 중국 동부지구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셸과 지방정부와 공동 작업을 함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석유화학공장을 갖출 수 있을 뿐더러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다수 확보 할 수 있으며, 동시에 CNOOC 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셸 화학의 에버트 헨키스 대표는 “ 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에 매우 기쁘다. Nanhai(난하이)는 석유화학 분야 굴지의 주요 생산기지과 함께, 주요고객에게 폴리올레핀을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셸의 집중화된 글로벌 전략에 부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주요사업 중에서 현재 셸은 시장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Nanhai(난하이)는 이러한 위치를 한층 강하게 해줄 것이다. 합작기업은 건설 및 기술,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셸의 우수한 강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세계적 규모의 프로젝트의 주요한 특징은 800,000 톤의 연간 에틸렌 부문, 연간 560,000톤의 스티렌 폴리머, 연간 250,000톤의 프로필렌

윤활소식

옥사이드 공장, 연간 320,000톤의 에틸렌 글라이콜 공장, 일정한 저밀도 프로필렌을 생산함과 동시에 연간 200,000톤의 규모를 갖춘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 그리고 통합된 시설을 갖춘 연간 250,000톤의 저밀도 프로필렌 공장 등으로 나열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복합구성은 국제적인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는 전제하에서 환경보호는 물론, 에너지, 자원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완성이 되면, 합작회사는 연간 생산량 23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광동지구 및 높은 소비율을 나타내는 중국 해안경제지구에 미화 17억 달러의 판매고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Huizhon (후이춘)의 산업발전 도모와 함께 부차적인 제조, 서비스 산업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S-OIL (주)

S-Oil, 원유도입 유산스금융계약 체결

S-Oil (대표 金鮮東)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은행인 The National Commercial Bank(이하 NCB)와 9월3일 9천5백만불 규모의 유산스금융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S-Oil이 사우디 아람코사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와 관련된 금융에 적용될 예정이며, 1년 계약기간에 발행이자율은 리보금리에 확정스프레드를 가산한 유리한 조건이다.

주간사는 NCB가 맡았고 그 외에 중동계 금융기관인 The Arab Petroleum Investments Corporation-Dammam 및 Al Bank Al Saudi Al Fransi-Riyadh가 참여하고 있다.

NCB는 중동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되는 원유와 관련된 금융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은행으로서 S-Oil은 NCB와 금번 유산스금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에서 회사의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계약에 의해 수입하는 사우디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한편 S-Oil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에 우량한 재무구조 및 탄탄한 국내외 영업력을 바탕으로 매출액 3조5,314억원과 순이익 2,062억원(세후)의 경영실적을 달성하는 등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범우화학공업 (주)

'기술·정도' 경영 고객불만 줄여

금속가공유제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과 정도' 경영위주로 사업을 전개했다.

지난 1987년부터 방침관리를 도입, 경영체질을 고쳐 경영방침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매월 TQM위원회에서 제품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활동을 전개해 고객 불만을 최소화했다.

매년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환경친화적 GREEN-AL절삭유와 Mill Clean 용 Synrol-300K압연유, 냉연강판 및 도금강판용

**운활소식**

BW-70시리즈 방청유 등의 시장선도형 제품을 개발해 고객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다.

고객사의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고객과 공동 기술개발, 기술컨설팅, 글로벌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B/S등의 기술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고객과 공동 기술개발은 POSCO와 함께 '고속냉간 압연유'를 개발했다.

해외 우수 기술자를 초빙해 고객사의 제조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컨설팅을 실시해 고객만족 향상에 기여했으며 99년부터 고객가치증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객만족 경영활동을 추진했다.

동문개폐기 등을 생산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는 물론 정유업체인 LG, SK 및 모빌, 이수화학, 국방부 등 일반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중국, 홍콩, 호주 및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으며, ISO 9001, QS 9000인증을 획득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일본(삼진화학), 캐나다(RECOCHEM)과의 기술협력관계에 있다. 전준식 대표이사는 "시설자동화 및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2001년 부동액 KS TOP상 수상이어 올해도 수상했다."며, "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동아특수화학 (주)**

**(주) 한국 발보린**

2002 KS 대상수상

ISO 9001과 S 9000 인증 획득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해온 동아 특수화학은 자동차용 부동액, 브레이크액을 설계, 개발 및 생산, 판매하는 전형적인 제조 중소기업이다.

창사 30돌을 맞이하는 역사를 오로지 부동액, 브레이크액만을 고집하며 전문 생산업체로 자리잡은 동아특수화학은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과 고품질을 추구하고 정도경영을 중요시하는 전준식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9개소의 대리점을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하여 '엄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생산라인에서는 품질혁신을 선행,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동아특수화학은 자동차용 부동액, 브레이크액, 윈드와셔액 등 기타 석유화학 및 자동차용 자

1986년 회사설립 이래 미국 발보린과의 기술 제휴로 발보린(Valvoline, 엔진오일)과 텍틸(Tectyl, 자동차 및 컨테이너 언더바디 방청코팅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주)한국 발보린(대표이사 신원범)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동차용 윤활유 및 방청코팅제에 대한 설계, 개발, 생산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ISO 9001과 QS 9000을 획득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한국 발보린 대표이사 신원범은 "이번 인증 획득은 그동안 꾸준한 품질 관리와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품질경영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으로 고객만족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품질에 대한 경영방침을 밝혔다.